

# AI 슬롭 현상에 대한 고찰

이영주\*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e-mail:yjlee@chungwoon.ac.kr

## A Study on the AI Slope Phenomenon

Young-Ju Lee\*

\*Dept. of Multimedia,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기술적 풍요 이면에 잠재된 'AI 슬롭(Slop)' 현상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생성형 AI의 대중화는 콘텐츠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나, 알고리즘 노출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양산되는 저품질 데이터인 슬롭의 범람을 초래하여 디지털 정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생산 비용과 클릭 수 중심의 플랫폼 수익 구조가 결합되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오염을 넘어 AI가 생성한 저질 데이터를 다시 학습함으로써 모델의 지능이 퇴행하는 '모델 붕괴' 현상이라는 기술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C2PA와 같은 개방형 기술 표준을 도입하여 콘텐츠의 생성 및 수정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워터마크와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AI 생성물을 즉각 판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와 더불어 저질 콘텐츠 농장을 방지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적·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AI의 작동 원리와 환각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AI 슬롭 대응은 단일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정보의 질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주체적인 시민 의식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 서론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분석형 AI의 단계를 넘어 텍스트, 이미지, 코드,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생성형 AI의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Chat GPT를 필두로 거대언어모델(LLM)과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은 물론 소리와 같은 영상 생성 모델의 등장은 전문 지식의 장벽을 낮추며 AI의 대중화를 견인했다. 이제 AI는 보조적인 도구에 머물지 않고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의성과 기획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접점에서 양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생성형 AI의 양산은 지식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패러다임의 거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양적 팽창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AI가 생성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려 사회적 신뢰 자원을 위협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AI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분쟁과 데이터 오염의 문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적, 윤리적 인프라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

음을 방증한다. 즉 AI 기술의 일상화가 가져온 풍요로움 뒤에 디지털의 무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콘텐츠 생산 능력을 부여했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과거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창작 활동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술적 풍요는 저품질의 AI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AI 슬롭(Slope)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슬롭은 사용자의 의도나 공익과는 무관하게 알고리즘의 노출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생성된 수준 낮은 데이터를 지칭하며 이는 현대 인터넷 환경의 새로운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AI슬롭은 단순한 저품질 게시물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파괴하고 인간 창의성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사회적 질병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슬롭이 유발하는 모델 붕괴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AI 슬롭의 정의와 부상 배경

슬롭은 본래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뜻하는 단어로 오늘날 IT업계와 학계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수익 창출이나 검색 엔진 최적화를 목적으로 생성된 무가치하고 질이 낮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AI 슬롭이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생산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반면 이를 통한 광고 수익이나 트래픽 유도 효과는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가치보다는 양이 중시되는 현행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슬롭의 배양액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교묘함이 더해지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AI슬롭은 거대언어모델을 통해 텍스트 생성이 자동화되고 멀티모달 기술의 발전으로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AI로 생성 가능해지면서 과거에는 제작이 어려웠던 고비용 콘텐츠 영역까지 슬롭이 침투하게 되었다. 또, API를 기존 자동화 봇과 결합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하루 수만 개의 게시물을 특정 웹사이트나 SNS에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기술적으로 생성 비용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AI슬롭이 범람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수익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수익 구조는 콘텐츠의 질보다는 노출과 클릭에 최적화 되어 있어 콘텐츠의 진위여부나 깊이보다는 접속자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슬롭 제작자들은 자극적인 키워드를 조합해 수익을 챙기고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좋은 글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교적 문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검색 엔진이나 SNS 플랫폼이 AI 생성 콘텐츠 알고리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AI 슬롯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3. AI 슬롭의 문제점

AI슬롭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보의 오염과 디지털 신뢰가 붕괴된다는 점이다. 검색 결과가 AI, 슬롭으로 채워지면 사용자는 가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며 오랫동안 검증된 지식보다 슬롭이 상단에 노출되면서 사회 전체의 지식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이는 진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모델 붕괴가 가속화 될 수 있다. AI는 인간이 만든 고유 데이터가 아닌 AI가 생성한 슬롭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모델의 지능이 급격히 저하하는 자기 잠식 현상과 획일화되고 편향된 오류가 정답처럼 고착될 위험이 있다. 또 재귀적 학습이 반복되면 성능의 퇴행은 물론 모델은 현실과 동떨어진 붕괴상태에 이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 창작 생태계의 고사이다. AI슬롭은 정당한 콘텐츠 시장과 창작자를 파괴하는 악화 현상을 만든다. 슬롭에 막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창작 의욕은 저하되며 슬롭을 살포하는 운영자에 의해 플랫폼의 수익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해 막대한 법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환경적 측면으로 자원 낭비와 책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무의미한 슬롭의 생성은 이를 서버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탄소를 소모하게 하여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고 심각한 자원 낭비를 발생하게 한다. 또 슬롭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생성한 AI나 플랫폼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4. 대응 방안

AI슬롭과 모델 붕괴라는 기술적 재앙을 막기 위한 해법은 단순히 더 좋은 AI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인적 역량이 결합된 다층적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 2.1 기술적 대응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의 의무화와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주도하는 개방형 기술 표준인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수정된 모든 이력을 디지털 메타데이터에 기록한다. 이미지가 촬영된 시점부터 AI로 편집된 단계까지의 정보를 검증 가능한 증명서 형태로 파일에 삽입하는 디지털 지문과 정보 수정시 인증서가 깨지도록 설계하여 AI가 생성한 슬롭인지 인간의 창작물 인지 즉각 판별할 수 있는 내변조성과 같은 것들이다. 또, 플랫폼 기업들은 슬롭 콘텐츠가 검색 상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2 제도적 대응

정부와 국제 사회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할 사회적 규칙과 명확한 표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 저질 콘텐츠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슬롭 농장에 대한 제재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 의료 등 공적 영향력이 큰 영역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사용자가 슬롭에 노출될 위협을 사전에 인지시키는 장치로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슬롭을 대량으로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농장을 방지하는 플랫폼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색 엔진이나 SNS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고품질의 인간 창작물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정책적 개입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2.3 사용자 측면

기술이 슬롭을 모두 걸러낼 수 없기에 최종 소비자인 대중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고도화를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단순히 정보의 양에 압도되지 않고 출처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AI와 인간의 산출물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I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는 교육을 핵심으로 환각 인지 교육을 통해 AI가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기계임을 교육하여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매끄러운 문체나 논리적 비약, 구체적 수치가 부재한 경우 AI 슬롭 특유의 패턴을 찾아내는 슬롭 식별 기술 역량을 길러야 한다. 사용자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정부 문서, 학술 논문 등을 통해 교차검증하고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역이미지 검색도구나 메타데이터 확인 도구를 활용하는 실습을 통해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5. 결론

생성형 AI가 가져온 콘텐츠 생산의 혁명은 동시에 AI 슬롭이라는 저품질 데이터의 범람과 모델 붕괴라는 기술적 퇴행의 위협을 불러왔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슬롭은 디지털 정보의 신뢰를 파괴하고, 인간 창의성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질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슬롭 대응의 핵심은 기술, 제도, 사용자의 다층적 방어 체계 구축이다. 기술적으로는 C2PA와 같은 콘텐츠 인증 표준을 통해 생성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슬롭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을 규제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 측면에서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고도화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이다. 결국 AI 슬롭 문제는 기술적 결함을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AI가 인간의 지적 동반자로 남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신뢰'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와 주체적인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Eduard-Claudiu Gross, Alicia J. M. Colson, "AI-Slop and Political Propaganda: The Role of AI-Generated Content in Memes and Influence Campaigns", ResearchGate, 제 6권 3호, pp. 289-298, 10월, 2025년 DOI:10.56177/eon.6.3.2025.art.1
- [2] 김갑수, "생성형 AI가 정보 확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정보 혼란 유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pp. 105-110, 11월, 2024년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499>
- [3] Amna Ahmed, Rohail Qamar, Raheela Asif,

Muhammad Junaid Imran, "The Dead Internet Theory: Investigating the Rise of AI-Generated Content and Bot Dominance in Cyberspace", ResearchGate, 제 12권 1호, pp. 37-48, 6월, 2024년 DOI:10.22555/pjets.v12i1.1077